

Artist's Statement

김세중

빛의 흔적을 쌓는 회화

나의 작업은 찰나와 지속 사이에서 빛을 다룬다. 빛은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나는 자연광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를 작업의 중심으로 삼아왔다. 나는 매일 아침 내 작업실 창가의 열린 틈 사이로 흘러드는 빛을 관찰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려 한다. 그러나 빛은 형태 없이 스쳐 지나고, 잡아둘 수 없는 존재이다. 이에 대한 회화적 해답으로, 유화 물감을 겹겹이 쌓아 빛의 흔적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시간과 기억을 물질로 전환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나는 드로잉을 기반으로 작업을 전개한다. 바닥에 펼쳐진 화면 위에 빛이 드리워지고, 그 빛은 머물다가 사라진다. 드로잉만으로는 빛의 소멸과 반복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유화 물감을 두껍게 쌓아가며, 매일 지나가는 빛의 흔적을 기록한다. 물감은 빠르게 마르지 않기엔, 이 과정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마치 기억이 층층이 쌓이듯, 물감도 하루하루 서서히 축적된다.

또한 구조적으로 종이 위에 질량을 가진 빛덩어리(물감덩어리)를 얹으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숨겨져 있는 구조에 대한 연구는 내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마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세심한 손길, 치밀한 순서에 입각한 나의 작업은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즐거운 애씀이다.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텍스트'이다. 나는 출판된 백과사전의 페이지를 한 장씩 뜯어내어 작업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사전의 한 페이지는 어떤 이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반드시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 즉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다가온다. 나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작품의 표면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에게 덜 중요한 부분이란 없으며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백과사전은 지식을 집대성한 매체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상징한다. 하지만 종이를 찢어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에서 개인적 경험과 감각을 담은 매개체로 변모한다. 이는 보편적이고도 개인적인 것, 기록된 지식과 감각적 경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다.

나의 작업은 빛을 붙잡고자 하는 시도이자,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려는 행위이다. 매일 반복되는 빛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흔적을 물감으로 쌓아가며, 존재와 소멸의 순환을 회화적 언어로 풀어냈다. 드로잉, 텍스트, 물감이라는 매체의 결합은 단순한 형식적 실험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 그리고 순간을 영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나의 화면 속에서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의미를 담은 층위로 남겨진다.